

제한된 동사 활용형으로 구성된 관용 표현

홍제성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제한된 동사 활용형으로 구성된 관용 표현을 한국어 사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문제를 간략히 살펴 보려고 한다. 이때의 사전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 왔던, 공시적 기술 우위의 큰 규모의 일반 한국어 사전인데, 우리는 특히 핵심적인 한국어 어휘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 정보를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수록하는 사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가 문제삼고자 하는 표현은 다음의 예문들이 보여준다.

- (1) ㄱ. 키 큰 사람치고(서)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더라.
 ㄴ. 그날따라 왜 그리 재수가 없던지...
- (2) ㄱ. 나는 저녁은 고사하고 아직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ㄴ.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의 특강에 많은 청중들이 모였다.
- (3) ㄱ. 이 숲은 계절에 따라(서) 색깔과 모양이 다양하게 변한다.

- ㄴ. 그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 ㄷ.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 내리느냐 + 내리는가 + 내리나)-에 따라 정국해결의 전망이 달라질 것이다.
- ㄹ. 장 교수에 따르면 이 가설은 크게 문제가 있다.

위의 용례에서 밑줄 친 표현은 동사 치다, 따르다, 또는 고사하다, 불구하다의 연결어미문을 구성하는 활용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표현을 내포한 연쇄는 일반 자유 용법의 동사구문과는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 이들 표현은, 관형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3)ㄱ의 경우를 제외하면(계절에 따른 색깔과 모습의 다양한 변화), 유일한 활용형이다.

- (1)ㄱ~ㄴ에서는 치고, 따라 앞에 분포된 명사에 -을, -에와 같은 보어의 표지를 회복시키기 어렵다.

- (3)ㄷ~ㄹ에서는 따르다의 일반 자유 용법의 어떤 구문에서도 관찰할 수 없는 특이한 속성- -에 앞의 인물명사 분포, 또는 내포의문문의 분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에 대해, -에 비해(서)/비하면 구성이나 -을 떠나서 구성에서도 볼 수 있다.

- (2)ㄴ의 불구하고 표현에서 선행하는 후치사구에는 보조사 도가 필수적으로 고정적으로 분포한다.

- 위의 문제의 표현을 내포한 연쇄에서 어떤 경우에도 주어를 회복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들 표현은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자유구문으로서의 연결어미문으로 분석하거나 데리다와 같은 불구동사의 제한된 활용형으로만 기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이미 간행된 국어대사전에서는 그 처리 방식이 사전에 따라 다르고, 또한 한

사전 안에서도 일관성 있게 기술되지 못한 형편이다. (1) ㄱ~ㄴ의 경우 치고, 따라는 조사로, (2) ㄱ은 부사로 범주화하여 표제어 지위를 부여한 사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전은 불구하다, 치다, 따르다 등 동사 항목 내에서 불구[불완전] 동사 용법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자유로운 일반 용법 중의 하나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이 유형의 표현들이 지닌 독특하고 복잡한, 용이하게 단일범주화할 수 없는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 표현은, 동사활용형이 부사 또는 조사의 지위를 갖게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 - 문법화(grammaticalization)로 지칭되는 이러한 과정은 근래 언어학계에서 새롭게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중에 놓인 복합적인 요소들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S-ㄱ이 무접개, S-는 바람에와 같은 관용 표현이나 또는 유일 분포의 명사 + 조사의 연쇄로 이루어진, 미연에, 미구에, 수시로, 대대로, 도처에(서), 가공의, 일말의, 일추의 등등의 복합 표현들도 유사한 예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들 표현을, 그것들이 보이는 제약이나 특이한 불규칙성에 근거하여 넓은 의미의 관용 표현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고, 사전을 위시한 어휘부에서 별도의 명시적 기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하나의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처리 방안을 고안해 보려는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한 마디로, i) 핵심이 되는 어휘요소(따르다, 무섭다, 바람 등)를 주표제어로 하는 항목 내에 ii) 이들 관용 표현을 수용하는 별도의 구획을 설정하고, iii) 일반 자유 용법이나 '미역국을 먹다', '좁이 쑺시다', '코가 납작해지다'나 '쌍수가 노랗다', '배가 아프다', '속이 시커멓다', '겉다르고 속다르다'와 같은 숙어동사/숙어형용사 용법과도 구별하여, iv) 이들 관용 표현에 어휘 범주를 명시하지 않는 준표제어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의미나 어휘·통사적 속성을 적절히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예시하기 앞서, 참고로, (1)-(3)의 경우와 유사하게 제한된 동사 활용형으로 구성되는 관용 표현의 다른 몇 가지 유형을 지적해 보자.

- | | |
|--------------------|---------------------------|
| (4) 알아서 (처리하다) | 대놓고 (면박을 주다) |
| 사서 (고생을 하다) | 덮어놓고 (좋다고 하다) |
| 잘라 (말하다) | 말아놓고 |
| 자진해서 | 뚫어져라 (쳐다보다) |
| 줄잡아 | 돌아가며[면서] (이야기하다) |
| 나아가(서) | 두고두고 (원망하다) |
| 말하자면 | |
| (5) ㄱ. 멋모르고 | 손꼽아 (기다리다) |
| 마음놓고 | 불보듯 (뻔하다) |
| 큰맘먹고 | 빠저리게 (느끼다) |
| ㄴ. 이를 악물고 | 목에 칼이 들어와도 |
| 꼬리를 물고 | 죽이 되든 밥이 되든 |
| 하늘이 무너져도 | 귀에 못이 박히게[도록] |
| 취도 새도 모르게 | 손이 발이 되도록 (벌다) |
| (6) (보 + 하)-다 못해 | (먹 + 읽)-어 봤자 |
| (보 + 듣)-자 하니 | (썩 + 읽)-어 가지고 |
| (먹 + 가)-다(가) 보니(까) | (하 + 보)-르라 치면 |
| | (있 + 읽)-다(손) 치자[치면, 치더라도] |

(4)는 선행 요소 없이 고정된 동사 활용형으로만 이루어진 관용 표현인데, 여기에 특하면, 결פת하면, 킁해야, 마지못해 등과 같이 이 형태 이외의 독립된 동사로서의 용법이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포함시킬 수 있다. 특하면류의 표현은 기간 사전에서의 처리처럼 부사로 분석하고 그대로 표제어화하여 기술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5)는 고정된 분포의 명사적 요소가, 동사와 통합되어 연속적 표현을 이루거나, 또는 그것에 후치사가 뒤따라 전체적으로는 부사와 같이 기능하면서

내적으로는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경우이다. (6)은 명사가 아닌 동사(또는 형용사)의 특정한 활용형이 선행 요소를 이루는 유형이다. 우리가 문제삼는 (1)~(3)의 유형과 (5)의 유형은 우선 선행 위치의 명사 분포의 개방성/고정성에 따라 구별된다. (5)의 유형에 속하는 표현은 활용 형태가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명사 분포가 몇, 마음, 손, 의, 귀 등으로 완전히 고정되고, 여기에 한정사나 수식어 성분이 전혀 결합될 수 없는 점에서, 전형적인 관용 표현을 구성한다.

(1)~(3)의 유형의 좀 더 확장된 목록을, 후치사의 실현 여부에 따른 연속 표현/불연속[분리]표현의 대립과, 후치사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하의 기술에서 N은 명사, S는 문장을 표시한다)

(7) N-건너(서) N-치고(서)

N-걸러 N-하며

N-따라 N-하면

N-삼아

(8) ㄱ. N-을 가리켜(서) N-을 보고

N-을 가지고(서) N-을 불문하고

N-을 놓고(서) N-을 비롯해(서)

N-을 두고(서) N-을 위시해(서)

N-을 둘러싸고 N-을 위한

N-을 따라(서) N-을 위해(서)

N-을 떠나(서) N-을 통틀어

N-을 막론하고 N-을 통해(서)

N-에 걸쳐(서) N-에 비해(서)/비하면

N-에/에게 대고

N-에 관해(서) N-에 비추어(서)

N-에 대해(서)	N-에 앞서(서)
N-에 들어(서)	N-에 의해(서)
N-에 따라(서)	N-에 이르기까지
N-에 따르면	N-에 이어(서)
N-에 반해	N-에 있어(서)
N-에도 불구하고	N-에 즈음해(서)
ㄷ. N-로 말미암아(서)	N-로 인해(서)
N-로 보아(서)	N-로 치(자)면
ㄹ. N-와 더불어(서)	
N-와 아울러(서)	
ㅁ. N-이 멀다하고	
ㅂ. N-은 고사하고	N-은 차치하고(서)
N-은 말고	

이들 표현을 (7)~(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분류하여 준표제어로 설정하고 하위 항목을 부여한다면, 다음의 다양한 속성이 그 기술 내용이 될 것이다.

1. 후치사의 생략 가능성

- (3) ㄱ~ㄷ의 N-에 따라 구성에서는 -에의 생략이 가능하나, (3) ㄹ의 N-에 따르면 구성에서는 불가능하다.

- N-을 두고 구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용법이 가능한데, (9) ㄱ의 용법에 서는 -을의 생략이 어렵다.

(9) ㄱ. 신동이란 모짜르트 같은 인물을 두고 하는 말이다.

- ㄴ.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두고 괜히 멀리서 찾았구나!
- ㄷ.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 봅시다.
- ㄹ. 이 교수는 (평생 + 일생)-을 두고 이 문제를 천착했다.

- N-은 고사하고/N-은 말고 구성에서 -은의 생략 가능성이 동일하지 않다.

2. 가능한 활용형의 범위

이들 관용 표현은 형태의 변이가 전혀 불가능한 것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형태의 변이를 보이는 것의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는 가능한 활용형을 낱말이 지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N-에 즈음해(서)
N-에 즈음한
- N-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N-을 둘러싼 (문제 + 논의)
- N-로 치(자)면
N-로 친다면
- S-기 위해(서)
S-기 위한
S-기 위함(이다)

3. 분포적 속성

3.1 N위치의 분포 가능한 명사 부류 및 명사 어휘

N위치 명사 분포가 제한된 경우도 있고, 열려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동사 용법을 특징짓기 위한 방법에 따라 N의 분포적 특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N-따라(서)의 N위치에는 오늘, 그날 정도의 시기명사(기간명사와 구별되는 시간명사의 하위부류)만 쓰일 수 있고, N-전너(서)/N-걸러(서)의 N위치에는 한 시간, 하루, 이틀 등 기간명사가 개방적으로 분포된다. (9)ㄷ의 두고 구성에서 역시 평생, 일생, 오랜 기간, 여러 날 등 기간명사만 용인된다.

- N-에 들어(서) 표현에서는 N 위치에 이 달, 올(해), 금주, 또는 1990년 대 등의 시기명사만 분포되고, -에의 생략이 가능하다(그러나 올들어에서는 반대로 -에를 회복시킬 수 없다).

- N-로 치(자)면[친다면] 구성은 다음과 같은 분포적 특성을 지닌다.

(10) N = 시기(옛날, 그때, 1960년대...)

김 의원의 행동은 옛날로 치면 꼭 왕명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11) N = 인물·사물·추상

ㄱ. 그는 음악가로 치면 스트라빈스키와 같은 예술가이다.

ㄴ. 꽃으로 치면 도라지꽃 같다고나 할까...

ㄷ. 진화 현상으로 치자면 돌연변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 N-에 따르(자)면 구성에서 N위치에는 인물명사·추상명사의 분포가 모두 가능하고, 여기/거기와 같은 장소명사도 쓰일 수 있다. 여기서 인물명사 + 에의 연쇄는 앞서 지적한대로 N-에 따르(자)면 구성을 동사구문으로 분석하는 데에 대해 절

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특이성을 이룬다.

(12) N = 인물·추상·장소대명사

- ㄱ.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기호는 자의적 성격으로 특징지어진다.
- ㄴ. 김 교수의 (관찰 + 주장 + 가정)-에 따르면 이러한 복합 표현은 합성어로 분석될 수 있다.
- ㄷ. (그의 글 + 이 가정 + 여기 + 거기)-에 따르면 장 교수의 분석은 오류이다.

- N-앞의 구성에 허용되는 명사는 경험, 시험, 재미, 농담, 장난, 모험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 한편 이 표현은 N-을 (거울 + 베개 + 벧)-앞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3.2 N위치의 보문 분포 가능성

사전에서 동사 구문의 속성을 기술할 때, 주어나 보어 위치에 보문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분포가능한 보문의 형태를 낱말이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사전 편찬 작업이나 동사 어휘 연구에서 미진했던 측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위의 (7)~(8)에서 인용된 높다나 떠나다 같은 동사는 다양한 용법을 보이는 데, 이들 동사가 활용이 자유로운 일반 동사로 쓰일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어나 보어 위치에 보문 또는 내포의문문이 사용될 수는 없을 듯하다. 한편, 다음과 같은 용법의 약속하다나 끌다/쓸리다 같은 동사는 각각 보어/주어 위치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보문/내포의문문이 쓰일 수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13) ㄱ. 지혜는 영주에게 그를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 지지하마고 + 지지할 것을 +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ㄴ. 지혜는 영주와 서로 이튿날 다시 만나는 것으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14) ㄱ. 특히 기영이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 았다는) 것이 가장 나의 관심을 끌었다.

ㄴ. 정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할지 + 할 것인가 + 하느냐 + 하나 + 할까)-가 무엇보다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5) ㄱ. 김 교수가 이번에는 어떤 내용의 논문을 발표-(할지 + 할 것인가 + 하느냐 + 하나 + 할까)-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쏠렸다.

ㄴ. 기영이가 인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 했다는) (것 + 데)-에 자연히 나의 관심이 쏠렸다.

우리는 (7)~(8)의 관용 표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문의 실현 양상을 살펴는 것이 뜻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분포가능한 보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또한 여기에 내포의문문이 포함된다.

(16) N = S 것

ㄱ. 그는, 남의 눈치 안 보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하며 꼭 자기 아버지를 빼어 닮았다.

ㄴ. 재학이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말이 많았다.

(17) N = S-ㅁ

ㄱ. 김 의원은, 같은 당소속 위원들도 찬성했음에 반해, 혼자서 끝까지 반대하였다.

ㄴ. 그가 참석을 못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날 모임은 무산이 되었다.

(18) N = S-기

- ㄱ.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ㄴ. 기영이는 그의 발언을 비판하기에 앞서 발언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9) N = S-데

- ㄱ. 위원장이 사임하기로 한 데에 따른 위원회의 부담감은 막중한 것이었다.
 ㄴ. 영주가 그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에 이어서 기자들로부터의 많은 질문이 뒤따랐다.

(20) N = S-고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선 양측이 냉정을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

(21) N = S-는지, S-느냐, S-는가, S-나

이 문제는 각자가 어떤 안을 (지지할 것인지 + 지지하느냐 + 지지하는가 + 지지하나)-를 떠나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4. 대용 표현 이, 그, 저의 사용 가능성 및 N-후치사 연쇄의 생략 가능성

N위치에 보문을 대리하는 대용 표현 이, 그, 저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거나, N-후치사 연쇄가 생략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각각의 관용 표현에 대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 보문을 용인하는 구성은 대체로 대용 표현의 실현을 허용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이한 속성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 + 그 + *저 + 이것 + 그것)-로 인해(서)

(이 + 그 + *저 + 그럼)-에 따라(서)

(*이 + *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 그러기) 위해

- 대부분의 경우 N-후치사 연쇄는 생략되지 않으나, 따라서, 이어서, 통틀
어, 더불어, 아울러 등은 선행 요소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다음의 경우를 구별해야 할 것 같다.

(22) 기영이도 집까지 (나를) 따라(서) 왔다.

(23) ㄱ.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그에) 따라(서) 오르게 마련이다.

ㄴ. 만수가 먼저 발언을 했고, (이에) 이어(서) 재학이도 발언을 했다.

(24) 진석이의 문제제기는 매우 적절하다. 따라서 기존의 지침은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22)의 용례는 이 자리에서 문제삼고 있는 관용 표현이 아니라, 다음의 예들
이 보여 주는 따르다 동사의 일반 자유 용법의 하나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논외
로 한다. (N-을 따라를 관용 표현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철길을 따라 걷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때는 N-을을 생략하는 것이 어려울 듯하다.)

(25) ㄱ. 모두 그를 따르라.

ㄴ. 조금 떨어져서 어린 동생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23) ㄱ~ㄴ의 용례는 바로 N-후치사 연쇄가 대용 표현을 내포할 때 생략될
수 있는 경우를 보여 준다. (24)의 따라서 사용은 N-후치사 연쇄의 생략으로부
터 도출되었다기보다는 그러므로, 그래서와 같은 접속부사 내지는 접속사로 기능

하는 독립된 용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따라서 앞에 이예를 회복시키면 (24)가 자연스러운 두 문장의 연쇄가 되지 못하는 점과 (24)의 따라서는 (23)의 경우와 달리 -선를 생략할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따라서의 의미·화용적 기능에 대한 별도의 분석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을 듯하다.

이상의 지적이 정확하다면, (22)의 경우는 일반 자유 용법을 기술하는 동사 항목의 본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24)의 경우는 따라서에 독립된 표제어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의미·화용적 기능을 그러므로, 그래서 등과 평행되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3)ㄱ~ㄴ의 경우는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준표제어 구획의 관용 표현이 지닌 통사적 속성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또는 단순히 적절한 용례를 통해 기록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한 자유 표현과 전형적인 숙어 표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관용 표현 중의 한 유형을 사전적인 처리의 시각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시된 기술 방법이나 내용은 한국어 화자가 활용하는 어휘 지식의 한 단면을, 또는 한국어의 복합적 어휘 표현이 기능하는 한 지층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표상하는 작업과 긴밀히 관계된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에 바탕을 둔 대규모 현대 한국어 사전의 구축이 학술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깊은 의의가 있고, 따라서 매우 긴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작업의 일단을 예시해 본 것이다.